



농림부

● 축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축산업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려는 농가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축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공포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월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업이나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이 등록제로 전환돼 반드시 해당 시나 군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 서성배 축산국장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최근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이 늘어남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을 등록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등록대상 가축의 범위와 사육규모, 등록기준 등 축산업 등록제의 구체적 내용은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등록대상 규모를 소와 젖소의 경우 30마리 이상, 돼지는 500마리 이상, 닭은 1만마리 이상, 사슴은 50마리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등록토록 할 방침이며,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사육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 제2회 「우수농축산물 산지-소비지 한마당」 행사 개최

농림부는 지난 10월 24~25일 2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서울농업무역 센터)에서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와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지농협·영농조합법인 등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브랜드시대를 맞이하여 산지 유통전문조직 중 한마당 축계에 참여한 조직을 대상으로 “으뜸 농축산물 선발전”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농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식 상품설명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상품성은 커녕 제대로 된 포장하나 갖추지 못한 채 산물로 출하돼 왔던 농산물과 축산물에 브랜드를 붙이고 소포장 선별을 해 산물이 아닌 상품으로 만들어 세련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바이어들을 초청해 납품제안을 하는 형식을 취한 이번 행사는 우리 농축산물의 상품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서 산지농협과 생산자들이 소비지의 다양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마당 행사를 보완 발전시켜 개최할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 2부 1실 4지역본부 체계로 조직개편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계란등급제 판정 등 업무확대를 대비해 지난 10월 1일 4개의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10개지소로 운영해온 일선조직을 권역별 4개 지역본부체계로 개편해 2부 1실 4지역본부로 운영된다.

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서울지소, 경기지소, 강원지소를 중부지역본부는 대전충남지소와 충북지소를, 호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지소, 전북지소, 제주지소를 영남지역본부는 부산경남지소, 대구경북지소를 관장하며 지역본부장은 주재지소의 지소장을 겸임하게 된다.

지역본부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및 인사제청, 등급판정 여건 조성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관할지역내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신규업무확대를 위한 관할 지역의 사업장 관리, 관할지소의 등급판정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농수산물유통공사

● 한 · 일 닭고기 교역증진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11월 6일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농업무역센터 강당에서 한 · 일 닭고기 교역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일본유통체제와 교역가능성 및 국제경쟁력에 대해 연구해온 고마이 스로 교수와 스기야마 미치오 교수를 초청, 스기야마 교수로부터 일본의 육계유통이 육계생산에서 판매까지 관여하는 계열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관적인 브랜드마케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산업의 안정, 식품의 안전, 소비자의 안심이라는 3가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마이 교수는 육계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알아야 하는 8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의 소비자들은 닭다리육을 선호하며 주로 냉장 식품 선택하며, 육계 처리 가공 방법이 타 국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통규격이 2.75kg으로 중국 2.5kg, 브라질 2.2kg, 태국 1.8kg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환율변동에 의해 생산비용과 거래가격 거래기준이 변화되기 쉽다며 브라질 리알의 경우 일



본 연회의 환율이 과거 161엔이었는데 최근엔 44엔까지 내려갔다고 제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본회 황인옥 고문은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종계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 차단을 위해 종계장 방역 강화, 종계 강제환우 금지 및 사용 유효기간을 우선 준수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질병방역을 위해서는 종계 도태시 정부가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창립 30주년 및 동물약품 30년사 발간 기념식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팔래스호텔 로즈볼룸에서 ‘창립 30주년 및 한국동물약품 3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신정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은 축산업 발전과 더불어 70~80년대 양적 성장기를 거치면서 동물약품의 자급화를 이루었으며 90년의 질적 성장을 통해 우수제조기준을 도입해 수급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기간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약품 공급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약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공로가 큰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에게 감사패를, 김흥기(초대, 2대, 3대 협회장 역임), 김길원 현축 회장(4대, 5대, 7대 협회장 역임), 최죽송 한풍산업 회장(6대, 8대 협회장 역임), 이오직 한동 회장(9대, 10대, 11대 협회장 역임)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사무실 이전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김강식)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서울농업무역센터 1102호
- 전화 : (02)6300-2666
- 팩스 : (02)6300-2669



양계수급안정위원회

● 양계수급안정사업으로 소비홍보 실시키로

양계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계란과 육계의 산지가격이 동시에 하락하여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그간 14백만개의 계란수매사업과 40만8천수의 육용종계도태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양계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반면 생산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 처해있어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양계산물을 이용한 요리책자 30만부를 제작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한편 홍보전단도 제작하여 양계산물의 소비촉진 행사시 활용키로 했다.

또한 대일 닭고기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공동으로 12월 중순에 일본 '九州 프로모션' 수출촉진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신임회장에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 당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무실 이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는 11월 14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4-37 우경빌딩 3층
- 전화 : (02)3471-0005
- 팩스 : (02)3471-0130